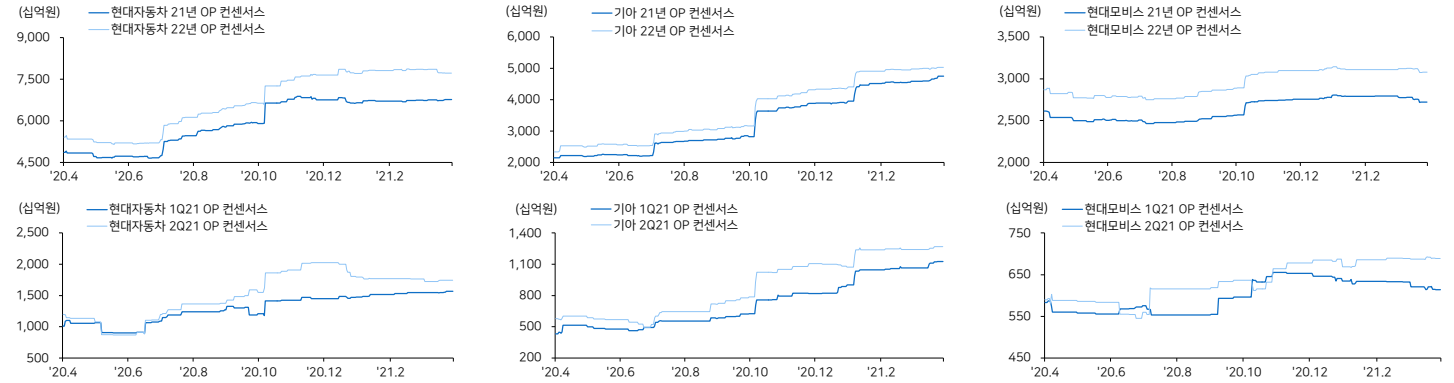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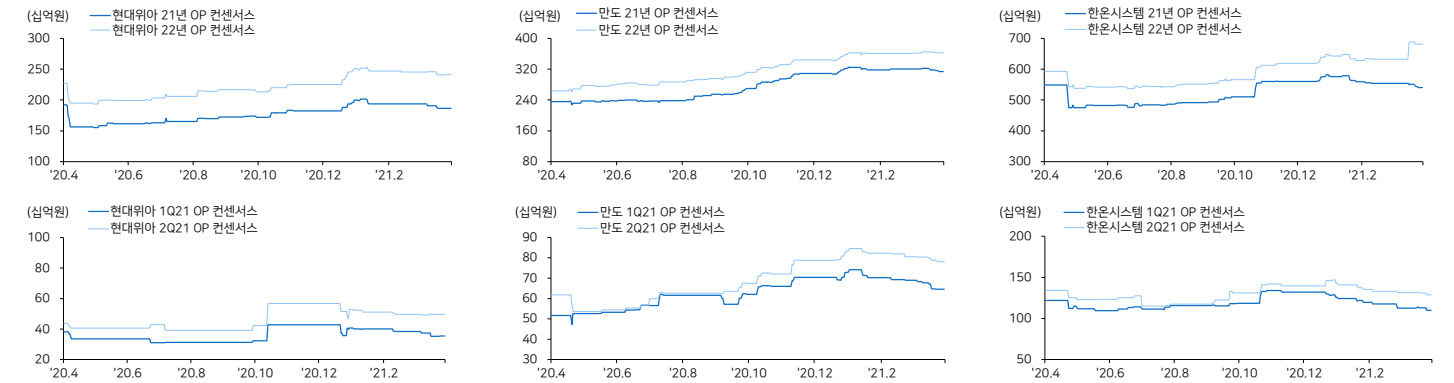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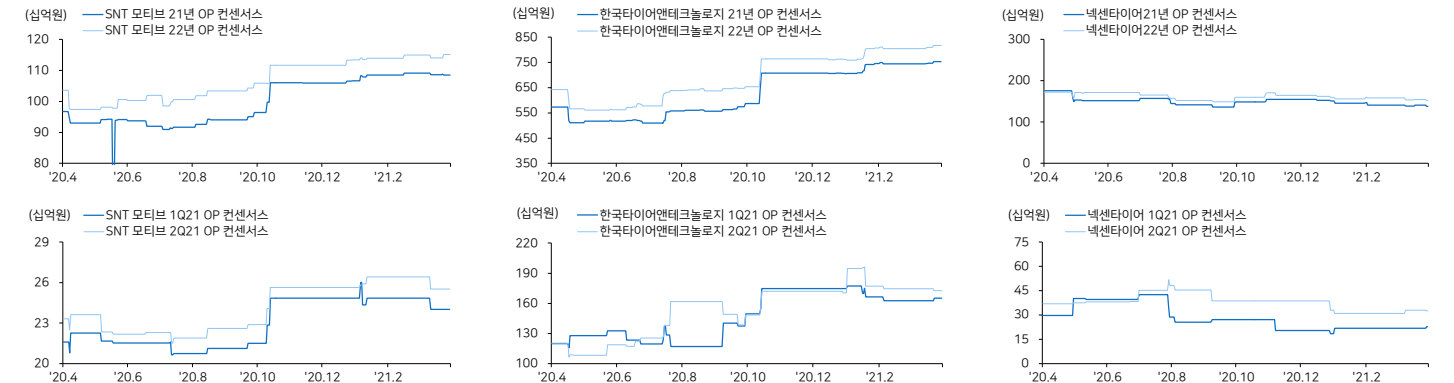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모셔널, 자율주행 '레벨5' 성큼... '터크' 교차로 기술 도입 (THE GURU)

모셔널이 AI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기술 전문업체 '터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이를 통해 모셔널은 자율주행 핵심영역 중 하나인 '교차로 360도 환경 조감도' 솔루션을 확보, 현재 개발중인 자율주행차량에 탑재할 수 있게 됨. <https://bit.ly/3dCBVMU>

현대차 이층 전기버스 다음주부터 도로 누빈다 (한국경제)

현대차가 개발한 국내 첫 이층 전기버스가 서울~인천 광역 노선을 시작으로 올해 총 40대를 순차 공급할 계획. 총 70명의 승객을 수용 가능하며,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으로 447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함. <https://bit.ly/3sJ4rkK>

삼성 하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개발자용 플랫폼 공개 (THE GURU)

하만은 지난 20일 구글의 차량용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개발자 전용 개방형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차량용 앱을 만들고 차량용 앱 시장이 개척되는 셈. <https://bit.ly/3e15yL>

'속도계 아날로그로 대체'...반도체 부족에 교육자책 택한 푸조 (한국경제)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인 푸조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차량 속도계 표시를 아날로그 장치로 대체한다고 발표함. 또한 '반도체 집 부족 사태가 중시될 때까지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언급. <https://bit.ly/3dB804a>

현대차, 후반도체 수급난에 멈췄던 아산공장 생산재개 (아시아경제)

현대차는 지난 19~20일 양일간 가동을 중단했던 아산공장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재개됨에 따라 생산을 재개했다고 21일 공시함. 지난 주 가동을 중단한 이들을 포함하면 약 4100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것으로 추정됨. <https://bit.ly/3n7lBpt>

현대차 "현대로템 자본 매각 추진 안해" (서울경제)

전날 시장에는 현대차가 독일 제조업 회사인 지멘스를 대상으로 현대로템의 철도 부문을 분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으나, 지분매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1일 공시함. <https://bit.ly/2RQPki>

버스공장 '가상 시찰'한 바이든, 美 전기차에서 중국 수출해야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내 전기차 생산을 늘려 중국을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산업 지원을 위해 1740억 달러의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며, 기후변화 대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차 산업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해 옴. <https://bit.ly/3xIMUSP>

EU,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5% 감축 결의 (파이낸셜뉴스)

당초 EU 27개원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30%로 잡았으나 50%로 재조정함. 이 합의는 오는 22~23일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제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와 이목을 집중시킴. <https://bit.ly/3dCbJlB>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